

# 거세지는 尹 입 “與, 광주 투쟁의지 약해질까 쇼핑몰 반대”

### 대구·김해 찾아 “민주, 김대중·노무현 팔아 정치” 공격 행보 “광주 GDP 꼴등” 발언 사실과 달라... 대구 최하위 역풍 조짐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카드를 꺼내드는 등 공격적인 호남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복합쇼핑몰에 반대한다”며 “광주 사람들이 좋은 물건에 현혹되지 않게...”라고 주장하는 등 공격의 수위도 높이고 있다.

이는 최근 호남에서 그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호남 관련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무리수’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실제, 윤 후보의 “광주 GDP 전국 꼴등” 광주 유세 발언은 사실과 달라, 1인당 지역내총생산·1인당 지역총소득 모두 대구가 최하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역풍 조짐도 일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8일 대구 달성군 유세에서 “대형 쇼핑몰에 있는 좋은 물건들, 명품들 이런 것에 도시인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투쟁 의지가 약화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자기들의 정치 거점도시

에 투쟁 능력이, 투쟁 역량이 약화된다고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행복을 책임져야 할 정당이 이어서 되겠다”라며 “오로지 자기들의 정치 거점으로서 투쟁 의지만을 부추기는 이런 정치인들을 이번 선거에서 퇴출시키고 끌어내자”고 덧붙였다.

그는 “자영업자들 핑계를 대면서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 골목상권이 망한다고 반대를 했던 모양이다. 지금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대하는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 대전, 부산 거기는 자영업자 다 죽었다고 쇼핑몰 유치한 것인가. 사람이 모여야 영업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광주는 왜 막았나. 왜 일부러 막았어. 민주화 투쟁, 민주당의 거점도시 역할을 하라 이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9일에는 경남 김해를 찾은 윤 후보는 민주당을 겨냥해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을 파는 것을 믿지 말자. 어디다 그런 분들을 내놓고 선거 장사에 이용하냐”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영남권 집중유세 이틀차인 이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경남 김해를 찾아 “TV토론에서 민주당 후보는 질문하면 내뺄고 동문 서답하기 일쑤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정당이 온전한 국민의 정당이고 민주당인가. 다시는 속지 말자”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김해 유세에서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면서 현재 민주당과 분리하는 데 집중했다.

윤 후보는 “김해로 오는 차 안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하며 왔다”고 입을 연 뒤 재입 기간 이뤄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한미FTA, 이라크전 파병 등을 거론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당이 맞는가. 지난 5년 동안 민주당 정권을 맡아드린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 주역들”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과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이 100분의 1이라도 있다면 민주당 정권이 이런 오만과 부패를 일상화할 수 있겠다”라고 강조했다.



촬영 준비하는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0일 방송광고 촬영을 위해 서울 중구 한 방송사에서 방송광고 촬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방송 광고 촬영과 토론 준비에 들어갔다.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윤 후보는 지난 16일 광주 송정매일시장 집중유세에서 윤석열 후보는 “광주 역대 GDP가 전국에서 몇 위쯤 합니까?”면서 “꼴등입니다, 꼴등”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대장동 녹취록 ‘그분’ 정체 밝혀져...尹이 몸통”

### ‘윤 3대비리 의혹’ 해명 촉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0일 대장동 의혹의 그분이 대법관으로 드러나고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석연창은 관계라는 녹취록 공개를 계기로 대장동 특혜 의혹 역풍에 나섰다.

우상호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민간 사업자인 김만배씨가 일당인 정영학 회계사에게 ‘윤석열은 죽는다’고 발언하는 녹취록과 김만배씨가 “이재명에게 돈을 줬어. 유동규에게 돈을 줬어. 내가?”라고 반문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우 총괄선대본부장은 “김만배는 ‘윤석열에 영장이 들어옴 윤석열 죽어’라고 한다. ‘윤석열을 두고 죄가 많은 사람’이라 말한다. 윤 후보가 김만배에게 ‘위험하지 않게 해’라고 말했다고도 한다”며 “이는 김만배에게 자신이 도와준 게 드러나지 않게 하란 취지로 말한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만배가 자신이 가진 카드면 윤석열이 죽는다고 말한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며 “오늘 공개 내용으로 윤석열과 김만배가 매우 깊은 관계이고 윤 후보가 김만배에게 치명적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만배는 정영학과 대화에서 이재명에게

돈을 줬어라고 항변한다”며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아무런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게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윤 후보가 아는 김만배 위험한 일이 뭘지 김만배가 말하는 죄가 뭘지 진실을 낱알이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병역 비리(부동시 논란) 의혹 ▲배우자 김건희씨 주가조작 의혹 ▲배우자 수사 의혹(부산 저축은행, 삼부토건) 등 ‘윤석열 3대비리 의혹’ 해명도 요구했다. 특히 부동시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 임용 시력진단자료 공개는 물론 제3의 중립적 병원에서 시력검사 후 공개를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李 ‘삼프로 2탄’ 기대 vs 尹 ‘혁신 성장’ 주력

### 오늘 대선후보 3번째 TV 토론

21일 대선 후보들이 서울 마포구 삼암동 MBC에서 열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한다. 4인 후보가 맞붙는 3번째 TV 토론이자, 지난 1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 TV 토론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토론 주제인 ‘코로나 시대의 경제 대책’과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포함한 경제 정책 전반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실물 경제에 밝은 강점을 심본 발휘하겠다는 각오다. 선대위 내부에선 이 후보가 확실한 판정승을 거뒀다고 판단하는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 2탄’이 인기를 끄는 기대감도 있다.

윤 후보는 ‘경제 분야에 약하다’는 일각의 편견을 깨뜨리겠다는 전략이다.

윤 후보는 특히 이번 TV토론에서 새 정부 경제 비전으로 내세운 ‘역동적 혁신 성장과 생산적 맞춤형 복지’라는 양대 축을 유권자 머리에 각인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양강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경제 체질 개선을 고민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취약층 지원 강화 등 대안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혁’을 앞세워 다른 세 후보와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뒷받침할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 경제제 구축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1조 펀드사기’ 옵티머스 주범 김재현 징역 40년

### 법원 “사회에서 격리 참회 필요”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1조원대 펀드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김재현(52)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은 1심대로 유지됐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47)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이사 윤석호(45)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이씨는 벌금 3억원, 윤씨는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가중됐다.

이씨에 대한 51억7500만원의 추징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펀드 사기 과정에서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이체확인증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현권 스킨엔스킨 고문은 1심의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보다 무거운 징역 1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송상희 옵티머스 사내이사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김재현·이동열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윤석호 피고인은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나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와 이씨는 전체 펀드 사기 중 이들이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부분들 가운데 일부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 대선 여론조사 브리핑

## 尹 42.9%, 李 38.7%...4.2%포인트 격차

### 리얼미터...안 8.3%, 심 3.2%

다자 가상대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3~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30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후보는 42.9%, 이 후보는 38.7%의 지지를 각각 기록했다.

윤 후보는 1주일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했고

이 후보는 0.4%포인트 하락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2.5%포인트에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 밖인 4.2%포인트로 벌어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0.6%포인트 오른 8.3%,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0.4%포인트 상승한 3.2%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임의결기(RDD)로 무선(95%)·유선(5%) 표본을 추출해 전화면접(30%)과 자동응답(70%) 방식으로 시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